

ἩΝΘΩΝΡΟ ΙΜΡΟΝΡΕ 박사Æ 창세기Æ ĆĆ회Æ 야곱의 딸과 베델로 돌아감Æ 창세기 ĆĈÊĈÆĈĎÈĈ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20회, 야곱의 딸과 베델로의 귀환입니다. 창세기 34:1-37:1.

20회기는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인 그의 12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34장, 35장, 36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특히 야곱의 혈통의 미래로의 전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의 이러한 종류의 전환에 대한 증거는 각 장을 진행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네 개의 매장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관한 것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장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28장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며, 그 일이 35장에서 일어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Jacob이 더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리적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에서를 만날 때 그가 요단강을 건너 세겜을 거쳐 베델을 거쳐 헤브론을 거쳐 간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절의 초점은 야곱의 아들들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약간 낙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도덕적 쇠퇴입니다. 34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도덕적 타락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아들들의 비참함, 부패, 도덕적 타락, 도덕적 붕괴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들의 도덕적 타락을 극복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2장부터 44장까지에서 우리는 아들들이 자기 형제 중 하나를 팔아넘긴 방식에 대해 회개 있음을 볼 것입니다.

조셉. 따라서 우리는 34장, 35장, 36장이 요셉의 이야기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속임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 전반에 걸쳐 우리는 어떻게 속임수가 계속해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자매를 속이는 일을 했을 때 시작된 이 생각이 어떻게 정점에 이르렀는지, 실제로는 정점에 도달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가장 큰 사기꾼인 야곱의 인물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정점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3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보려면 18절로 시작되는 마지막 문단의 33장을 보면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아람 평야인 밧단 아람에서 왔고, 그 내용이 32장과 33장에서 우리에게 보고됩니다.

여러분은 32장과 33장의 투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투쟁과,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33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화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세겜 성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장소 중 하나였으며, 12장에서 그 장소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쨌든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여 그 도시가 보이는 곳에 집을 쳤습니다.

그는 은 백 냇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는데 이 경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겜은 마을이나 도시 또는 세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막벨라 매장지를 구입한 일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장지를 위해 산 것이니, 여기서 그는 단지 매장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장소이자 세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로 부지를 샀다. 그래서 그는 땅을 구입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는 야곱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그의 자녀, 아내, 다양한 종, 동물 무리 및 그 밖의 모든 것이 그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의 소유물.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엘 엘로헤이 하나님, 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처럼 예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상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속적인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용어는 엘 Elohei 로 사용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둘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된 백성, 그리고 그 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의 맥락에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따라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된 내용은 3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의 투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 과의 싸움입니다 . 그리고 이것이 장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은 레아가 디나라는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시므온과 레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디나는 그들과 친밀한 형제자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겜이 디나를 모욕한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중요할 것입니다.

이 두 형제가 이끄는 세겜 사람들을 상대로 속임수를 써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그녀의 굴욕과 치욕에 복수하고 복수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에 다른 형제들도 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쇠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Jacob에게도 그다지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이 한 일을 알게 되면 그는 확실히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보기에 내가 냄새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즉, 이웃이 어떤 종류의 보복을 가할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룹 전체가 의심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오히려 1절부터 4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살인적인 배신과 그들의 아버지의 배신으로 이어질 배경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과 회개한 에서와의 만남과 화해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낮은 성품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한 고통과 슬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과 사악함의 유산을 갖게 된 이전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징후는 형제 살해 사건이 있는 4장에서 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척인 형제가 있는데, 그는 아벨에 맞서 자기 동생 가인을 죽이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겜이 그녀를 관찰하고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세겜 족속을 히위 족속이라고도 부르는데 2절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종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듯이 전체 가나안 종족 그룹을 대표 하는 일곱 종족 또는 국가가 있습니다 .

히위 족속은 일곱 나라와 함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적으로 언급됩니다.

히위 족속은 그들의 역사와 어원에 관한 한 어렵고 실제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 과 히위 사람들을 바꾸어서 같은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다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저는 텍사스 사람이지만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지역의 통치자였으므로, 신약성경에서는 통치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가 왕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겜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도시 국가 자체보다 더 넓은 지역인 지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제 그가 디나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표현은 창세기 6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인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관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말, 취함,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묘사된 내용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경우 take는 결혼에 대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 그는 실제로 그녀를 강요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녀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그녀를 범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부 버전은 성추행으로 읽혀집니다. 전통적으로 그것은 강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굴욕을 의미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는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는 강간을 뜻하는 한 단어로 된 전문 용어가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된 강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특히 take라는 단어와 함께 발견한 이 설명은 그녀가 강제로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 즉 자신의 인격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가 단순히 그녀를 모욕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녀를 납치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참금을 지불하고 디나의 가족이 그 과정에 참여하여 존중받는 약혼과 결혼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여기서 성적 위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전 강간이었죠. 그의 마음은 디나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위반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거나 협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히 그녀의 위반은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끔찍했을 것입니다. 무고한 여성에 대한 그러한 끔찍한 행위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 모세 언약의 율법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반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당신이 협상을 시작하고 그녀를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5절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세겜을 떠나 벵엘로 가는 부분(5-15절)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에서 15까지, 아니 오히려 5에서 24까지를 백업해야 합니다. 5장부터 24장까지는 히위 사람들이 디나와 결혼하기로 협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의 아들들은 멀리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입니다. 제이콥은 영적 발전 면에서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가족에 대한 리더십과 도덕성을 희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양한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넘어가고, 6절과 7절에서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와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첫째, 그들은 슬퍼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제이콥 일족 전체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에 잠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가 난 만큼 화가 났다고 합니다. Fury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좋은 번역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놀라운 점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경우로 받아들인다면, 물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큰 민족 집단이 되는 시점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딸과 동침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경에 나오는 언약법의 언어입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은 종종 성적 부도덕과 범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워 있다는 노골적인 표현은 나에게 성적 굴욕이 있다는 것을 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8절에서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마음에 두었느니라. 당신의 딸이 마치 아들들 중 하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이 연대와 연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 측에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세요. 이는 정중하게 협상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많은 협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와 통혼하십시오.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자, 이것은 그 자체로는 다소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협적입니다. 오경, 즉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통혼은 모든 경우에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두 가지 세계관, 즉 우상 숭배 세계관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야훼교의 세계관 사이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협적입니다. 부분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초래된 배교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그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0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사이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역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상호 안전과 보호에 관한 조약이 있을 것입니다. 땅은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고, 거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세요.

즉,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는 백지 위임장입니다. 야곱 씨족은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 덕분에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상관 없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번 일로 인해 세겜 사람들을 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 이것은 1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누이 디나가 더러워졌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 번역에서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만적이게도 정말로 종을 올리는 것 같죠? 우리는 족장 가문 전반에 대해 배웠고, 야곱이 모든 면에서 속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의 실수를 회개하고, 라반과의 화해와 라반과의 화해로 변화한 것에 대해 확실히 배웠습니다. 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를 흥분시키고 괴롭힐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말할 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과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17장에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모든 약속에 대한 언약의 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할례는 적절한 표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계약에서 많은 관심이 그의 미래 후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손을 낳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별하고 식별하는 적절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덟째 날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나 야곱의 가문에 속하게 된 모든 남자는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우리의 전통, 즉 아브라함 언약의 유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따르고 우리의 관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하기로 선택한 세겜 사람들 의 마음에 중대한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16절에서 계속됩니다. 오직 할례를 받기로 동의한 후에야 통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종족 그룹 사이의 모든 긍정적인 점과 이것이 우리 두 그룹 사이의 좋은 경제적,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해 의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와 한 민족이 되리라

그래서 두 종족 그룹 사이의 연합, 연대가 그들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동의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전체 그룹인 세겜 사람들에게는 이 제안이 매우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겜 사람들이 이 동맹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세겜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매우 끔찍한 것은 이 조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함으로써 단순한 속임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행한 방식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퇴폐적이고, 퇴폐적이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헌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적이거나 목사나 선교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방식대로 교회에 바친 돈, 즉 성스러운 헌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매우 역겨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그 돈을 빼앗아 비참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장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신성한 태도가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퍼레이드 신호는 족장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악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글쎄요, 우리가 다음 장, 아니 오히려 제가 말해야 할 단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협상이 사람들, 즉 세겜 사람들 자신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하몰과 그의 아들이 세겜 족속의 지배 엘리트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무역을 하게 해주세요. 땅에는 그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에 쏠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한 민족으로서 살기로 동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할례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다른 종족들에서도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포경수술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족들에서는 사춘기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춘기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이 언약 관계를 위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일하게 행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더욱 설득하기 위해(23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다른 모든 동물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음, 그것은 낙관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정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얘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 그들은 삼일 후에 그들을 공격하여 살해하려는 시므온과 레위의 계획에 맞서 방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3일 후일까요? 글썄요, 포피를 제거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 쇠약해진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도시를 통과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이 학살에 연루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빼앗고 세겜 사람들을 약탈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제 야곱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악취를 풍기게 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물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가 나는 일이니라 13장에 처음 언급된 그 지역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족속이니라 7.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수가 적습니다.

보세요, 내 생각엔 이것이 그가 국가에 매우 취약하다고 느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땅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만일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대적하여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의 부도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결과만 언급합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여동생을 매춘부처럼 대했어야 했나요? 저는 우리가 이 반응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여동생을 매춘부처럼 대했어야 했나요? 그것은 성명입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우리를 학대하면 우리가 이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태어날 때의 축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만 앞으로 일어날 매우 슬픈 일련의 죽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에 있고 그 약속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거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전체 원을 가져옵니다. 베델에서 출발하여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의 신들을 매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기 오빠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 숨겼던 것을 기억하라.

그 외에 무엇을 쌓아 두었든지 곧 우상 숭배와 점술에 속한 것들과 그 반차의 것들이니라. 그래서 그는 먼저 이 정결 예식을 통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식을 통해, 즉 우상 숭배의 흔적을 스스로 정화하는 의식을 통해 암시될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과거에 제쳐두어야 할 오염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는 권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공유했고, Jacob은 그렇게 하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을 떠나 베델로 가자. 그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장사지, 첫 장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4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사했습니다. 그들이 떠났더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사면 성읍들에 임하였으므로 그들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 그것은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즉, 이 적들, 잠재적인 적들이 야곱 일족에게 반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기 위해 부과하신 공포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즉,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속임수, 납치, 살인, 아, 정말 불쾌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방식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를 비롯해 시므온을 비롯한 모든 백성과 지파와 요셉을 납치하고 판 일에 책임이 있는 형제들에게 회개의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 그들은 스스로 겸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높은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신명기에서는 말합니다. 아버지들. 그리고 그는 일련의 경험,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상황을 통해 그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시편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1절에서는 당신이 그곳으로 향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저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주여 나를 깊은 곳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련과 고통의 때뿐 아니라 죄 많은 때에도 회개가 요구되는 방식입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자비를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죄를 기록해 두신다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오히려 당신께는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7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는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이것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시작하시고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장들의 생애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야곱과 야곱의 이 아들들의 생애에서조차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절부터 15절까지에 베델로의 복귀가 묘사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핵심 사상은 9절입니다. 이것이 5절부터 15절까지의 요점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관이고 시각적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은 야곱이지만,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짓는 중요성의 반복이며, 이는 그가 엘과 씨름했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그가 완전함의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그의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있는 곳에서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 중이에요.

그는 영적 발전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지적했듯이,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가 생기고 사악함과 비참함이 일어나면 그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충실한 새 삶의 정화 의식을 거친 후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마다 장마다 들어본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것을 앞으로 가져오는 것, 전환,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장에서 아브라함,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많이 반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다시 한번 번영과 출산의 반복, 위대한 나라 건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17장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점은 이 민족 공동체가 종 엘르아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도 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야곱이 28장에서 베델에 했던 것처럼 돌기둥을 세운 곳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기념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영적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개인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치가 아닙니다. 그분은 컴퓨터가 아니시지만 개인적이시며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개인적인 관계, 만남, 약속이 있을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극적인 발전, 극적인 발전, 극적인 강렬함,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본성과 그 특성을 취하실 때, 그러나 죄는 없으시므로, 하나님이 이 첫 장에서 시작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나라, 하나님은 여러 세대와 다양한 종족을 거쳐 펼쳐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위한 축복이 있으니 그는 참으로 나라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낳은 드보라와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12번째이자 막내 아들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에게 대해 편애를 나타냈고, 다음 번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 출산을 위한 그녀의 투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야곱 에서가 겪었던 투쟁의 메아리가 될 수 있으며, 그 예언, 어떻게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예언이 우리가 발견한 것에서 성취의 중요한 단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야곱 에서의 기록에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역사와 상하 관계, 특히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적대 관계를 추적하면서 창세기가 지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긴 역사. 그러나 선지자들은 시편 기자들처럼 이스라엘과 이 모든 다양한 종족 사이의 화해에 대한 장래의 때에 대하여 말하며, 창세기 10장, 곧 민족들의 식탁에 묘사된 종족들과 복음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 축복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도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이 기대가, 희미하게 보여지고, 함축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참된 자손이신, 이상적인 축복받은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그가 어떻게 성령을 위임하고 갖추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제시하고, 그들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떠올리게 하며, 다시 나아가 맥도웰 너머에 천막을 쳤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재난이 닥쳤습니다. 열두 제자 중 장자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여 근친상간을 범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자라는 가장 특권적인 소유물에서 있었을 르우벤의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행위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이 열두 아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된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우리가 방금 말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나중에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 읽을 때 역대기의 저자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요셉의 후손에게 축복이 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읽을 것은 드보라가 죽었고 라헬의 여종이 누구인지를 내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레이첼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의 장례를 가졌습니다.

신들의 매장에는 네 번의 매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은 이제 아들들에게 새로운 초점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 즉 이스마엘의 후손인 12지파가 있습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아내들과 그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을 차지하지만 지금은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36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통찰력이 제공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기 전에 에돔을 통치했던 왕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찰력에 대한 후속 메모임에 틀림없습니다. 통찰력은 이후 독자들을 위한 것 입니다. 이후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글썄요, 우리는 에서에게서 태어난 수장들과 등장하는 왕들을 모두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외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창세기 자체에서 다가오는 왕이 있다는 암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야곱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날 왕이니,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번 37장 2절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와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족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캐치프레이즈에서 본 것처럼 앞을 가리키며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야곱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20회, 야곱의 딸과 벤엘로의 귀환입니다. 창세기 34:1-37:1.